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대인 선생은 삼대 시대가 존귀할 수 있었던 까닭이 바로 ‘학교와 강학 제도’ 덕분이라고 말씀하셨다. 당시에는 강(講)·서(序)·학(學)·교(校)의 제도가 잘 갖춰져 덕이 온 나라에 두루 미쳤지만, 후세의 임금들 때에는 이 제도가 무너져 국가가 멸망했다고 보았다. 사람의 타고난 재질은 모두 비슷한데, 가르침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진다. 후세 사람들이 삼대의 정치를 본받고자 하면서도 교육 제도를 외면하는 것은, 네모를 그리고자 해 놓고 자와 컴퍼스를 버리는 것과 같다. 비록 내가 지금 관직에 있지 않아 나라에 직접 시행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고을 선비들에게만이라도 이 제도를 권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의 제자가 “배우는 방도(學道)가 무엇이나” 하고 묻자, 선생이 답변하시기를 학문을 닦는 까닭은 결국 성인(聖人)에 이르는 길을 배우려 함이다. ㉡ 순임금과 도척(盜跖)은 본성은 같으나 나아가는 길이 다를 뿐이니, 그 차이를 모두 알 수 있겠는가? 내가 말해 주겠다. 하늘이 낸 만물 중에 새는 날개로, 짐승은 발굽으로, 물고기는 비늘로, 또 사람과 비슷한 모습이지만 짐승처럼 사는 자도 있다. 모두 하늘이 낸 존재이나, 오직 사람이 ‘가르침’을 받아 가장 고귀해진다. 배움 없는 사람은 짐승이나 오랑캐와 다를 바 없으니, 배움이란 재질(才質)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나면 천지의 이치를 받아 성(性)을 이루고, 기운(氣)을 받아 재능(才)을 갖춘다. 성에는 선악이 없지만, 재능에는 차이가 있어 생지(生知), 학지(學知), 곤지(困知)의 세 단계가 생긴다. 비록 재능에 차이가 있더라도, 배움을 통해 재질을 바꾸면 누구나 요순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머리를 곤게 세우고 눈빛을 바르게 하는 것은 ‘몸’을 닦는 것이고, 곧으면서도 온화하고 너그럽되 위엄을 갖추는 것은 ‘기운’을 다스리는 것이다. 성인은 본래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 기질을 바꾼 결과이다. 이것이 ‘순임금과 도척은 근원이 같다’고 한 뜻이며, ‘배워서 성인에 이르는 방도’이다.

또 다른 제자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성(性)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묻자, 선생이 이어서 해설하시기를 하늘이 음양오행으로 만물을 낳듯, 사람이 태어나면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본성이 주어진다. 이 본성을 ‘체(體)’라고 하고, 이를 바탕으로 드러나는 마음을 ‘정(情)’이라 하며, 성정(性情)을 다스리는 마음을 ‘심(心)’이라 부른다. 미발(未發)된 상태를 ‘중(中)’이라 하고, 발현된 뒤의 조화를 ‘화(和)’라 한다. 이성(理性)을 믿는 것이 ‘신(信)’이고, 존중하는 것이 ‘경(敬)’, 끊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성(誠)’이다. 상제(上帝)가 내린 충의(衷意)도, 성인이 가르친 도도(道)도, 만물이 본성을 지키려는 것도, 배우고 익히는 것도 모두 이 성정과 경·신·성에 닿아 있다. 배움의 핵심은 ‘성(性)’과 ‘경(敬)’이다. 사람은 태어나 순수하지만, 외물(外物)과 접촉하며 마음이 동요되어 칠정(七情)이 일어나고, 과도한 정욕이 성품을 가리면 탐욕과 혼미로 본디의 밝음을 잃는다. 그러나 천리(天理)는 사라진 적이 없으니,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질 뻔해 놀라는 것은 본연의 밝음(本心)이 발현된 것이다. 이 본심을 키우려면, 흩어진 마음을 가다듬어 중도를 지키고, 번잡한 욕심을 계속 줄여 욕심 없는 상태에 이르면 지극한 보존 양육(存養)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낮에는 배우고 밤에는 깨달으며,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힘 쓰면 성인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이것이 요순 시대 선각자들이 집마다 학교를 세워 가르치고, 후진들이 이를 배우며 훌륭한 풍속을 이루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지금은 경전(經典)의 본뜻을 잃고 겉멋에 치우쳐 주술적 해석과 문자 풀이에만 매달리니, 필자는 이것이 매우 안타깝다. 오늘날 선비들이 과연 ‘배우는 방도’를 아는가? 배워도 그 길을 모르면, 그들이 배우는 것이 무슨 학문인지 알 수 없다. 만약 후진 중 내가 가르침을 끝까지 실천할 자가 있다면 성인이 되는 일도 어렵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훌륭한 군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방도에 관해 선생에게 묻다 -

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삼대 시대의 국력은 훈련과 엄격한 정치 제도 덕분이었다.
- ② 성품에 차이가 없을지라도 배움을 통해 성인에 이를 수 있다.
- ③ 기운을 수양하기 위해 머리를 곤게 세우고 눈빛을 위엄있게 해야 한다.
- ④ 본심은 외부 자극이 닿아도 흐트러지지 않는 고정된 상태이다.
- ⑤ 훌륭한 군자가 되기 위해서 낮에만 시간을 투자하면 충분하다.

8. ㉡을 인용한 글쓴이의 의도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체·정·심과 같은 추상 개념을 정의하여 성품과 재능이 후천적 기질임을 밝힌다.
- ② 배움의 궁극적 목적이 본성의 해소와 존중임을 강조하여 재질의 변화 필요성을 호소한다.
- ③ 교육 제도의 한계를 고찰하고 낮에는 배우고 밤에는 깨달아 성인 경지에 이르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 ④ 사람의 타고난 본성이 같으므로 배움을 통해 재질을 변화시켜야만 한다는 성인의 본질을 환기한다.
- ⑤ 순임금과 도척이 서로 성품은 동일하나 근원이 다른 이유를 외물과 칠정에 가려진 본심으로 설명한다.

6. 윗글과 비교하여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학문의 핵심이 제도와 수양의 상호 보완에 있다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는 원칙입니다. 옛날에는 궁궐 강당에서 과거 제도로 관리를 선발하고, 사학에서는 주자학 경전 강독을 통해 덕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시대가 바뀌며 서원 강습과 설문 토론이 학풍을 이끌었고, 근현대에는 학교 정규 교육과 학습 동아리 활동이 병행되어 이론과 실천 양면을 두루 익히게 하였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고대에는 문헌 탐구와 토의를 통해 본성을 다듬었고, 중세에는 형식화된 의식과 축제를 통해 마음을 수양했으며, 근대 이후에는 경험과 체험을 통한 실천적 배움이 강조되었습니다.

- ① 교육 제도를 본받으면서도 정작 국가 정치를 배제하는 태도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점에서는 ㉠와 일치한다.
- ② 동일한 수준의 가르침을 제공받아도 수양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성인에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와 일치하지 않는다.
- ③ 시대가 변해도 낮에는 배우고 밤에 깨닫는 문화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여기는 점에서는 ㉠와 일치한다.
- ④ 경전의 문자를 풀이하러 강독하는 수양 방법이 한 시대의 보편적인 배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와 일치하지 않는다.
- ⑤ 시간이 지날수록 비단 혼자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다같이 모여 토론하고 실천적으로 활동하는 학풍이 발달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점에서는 ㉠와 일치하지 않는다.